학교도서관 장서개발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사서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chool Libraries :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eacher Librarians

장 덕 현(D. H. Chang)**
강 은 영(E. Y. Kang)***

〈목 차〉

Ⅰ. 서론
Ⅱ.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의의
 1.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특성
 2. 학교도서관 장서개발관련 연구
Ⅲ. 연구방법과 조사결과
 1. 연구방법
 2. 조사결과
Ⅳ. 학교도서관장서개발 개선방안
 1. 학교도서관의 인프라
 2. 장서개발정책
 3. 자료선정
Ⅴ.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과정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조사연구이다. 장서의 중요성과 주로 소규모장서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학교도서관에 있어서 장서개발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도서관은 자료구입 예산의 부족, 사서교사의 부재 또는 과도한 업무, 관리자의 무관심과, 잦은 전출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장서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바탕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고 관리되는지 그 현상적 과정을 파악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상황을 분석하여 실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장서, 장서개발, 장서관리, 사서교사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ge of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in school libraries based on interviews with 20 teacher-librarians in school libraries. Library Collection is the primary element of a library and collection development is the starting point of librarians' duty. The researchers shed light on such issues as observed in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in school libraries. Through the visits and observations such problems as aging book collections, lack of support of administrators, imbalance in subject distribution are identified.

Keywords: School Library,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Teacher-librarian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제1저자)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kang@sill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6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41-259,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241]

www.kci.go.kr

Ⅰ. 서론

> “여기가 또 한가지 좋은 건 말야 책을 맘껏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난 집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거의 다 못 읽었거든. 우리 엄마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철저히 막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독서, 독서를 권장해. ‘책 속에 길이 있다’ 하시면서 ... (중략) ... 여기 도서관에는 좋은 책들이 아주 많아서 난 밤에는 거의 책을 읽으면서 보내.” (조정래. 풀꽃도 꽃이다: 292)

도서관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다채로운 유형의 매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용자가 다종다양한 사회적 관점에 대하여 폭넓게 인지하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사회에 존재하는 다종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학교도서관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016년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총 11,856개 중 99.2%에 해당하는 11,766개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즉, 사서교사 또는 사서는 겨우 47.7%인 5,652명에 그치고 있어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라 하겠다. 이처럼 약 50% 이상의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국의 학교도서관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6%인 717개 학교에 불과하다. 나머지 4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도서관에 일반직 사서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학교라는 특성상 이용자 대응과 수업참여 등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가장 강력한 유인은 교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장서구성,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학생밀착형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에서 교과와 수업에 깊이 개입하고 과목담당 교사와의 협력(collaboration)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하나의 원인으로 ‘사서교사’와 ‘장서’에 주목하였다. 즉, 학교도서관이 과연 ‘사서교사’와 ‘장서’를 기본에 두고 장서를 매개로 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책을 기본에 둔 본질적인 서비스와 장서개발의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www.kci.go.kr

있고 장서수집이 정례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학교도서관에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충실하게 구성된 장서를 갖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장서개발 업무가 대부분 비전문가인 과목담당교사나 학부모 도우미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정보, 사상, 계몽이라고 하는 도서관 장서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학교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소한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사서교사가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 협력수업 등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도서관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94%가 이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 학교도서관의 장서관련 일련의 프로세스를 과연 '장서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학교도서관에서의 '장서개발'이란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의 과정을 조사하고 가능한 장서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20명의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과 부분적인 방문조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 자료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 장서개발 영역의 주요 현황을 조사하였다.

Ⅱ.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의 의의

1.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특성

[도서관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 · 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제2항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원의 학습 · 교수 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역시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사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 전개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들의 건전한 교양을 기르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

www.kci.go.kr

은 자료를 수집하여 장서를 구성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교과연계활동을 수행한다.

즉, 학교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는 달리 교육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를 수집 · 조직 ·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 단계상 특징과 지적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활용교육, 프로그램학습, 자유학기제 하의 탐색학습,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료의 수집은 가장 먼저 기술되어 있는 업무로서 도서관의 원천적 업무이자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다. 또한 모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수행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 과정은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영역이다. 따라서 교원의 자격을 지닌 사서교사가 외부의 비전문적이며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전문직으로서 학교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장서의 질과 양을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김종성, 2004).

2.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관련 연구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학교도서관의 자료선정 등 장서개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우선 김평훈은 학교도서관 도서선정에서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이용자인 어린이의 요구 반영, 전체적인 장서구성을 고려한 연간 계획의 수립 등을 강조한 바 있으며(김평훈, 1979), 서진원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뉴미디어를 학교도서관 장서에 포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서진원, 1988). 이어 이병기는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자료를 소장하여 교육과정 수행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 둘째, 문헌자료 뿐 아니라 시청각자료까지 포함하여 교육매체센터 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장서현황을 분석한 다음 이를 해외 학교도서관 장서현황과 비교하면서, 국내 학교도서관 장서 문제의 원인을 장서기준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적기준 자체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이 교육매체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였다(이병기, 1993).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후 이어지는 변우열의 연구에서 좀더 구체화되었다. 변우열의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의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을 비교, 분석한 다음,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의 요소로 자료의 종류와 범위, 기본자료, 연차증가율, 자료의 주제별 구성비율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도서와 시청각자료의 최저기

www.kci.go.kr

준, 연간 증가책수, 연속간행물 종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안)을 제안하였다(변우열 1998).

이처럼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학교도서관 장서개발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다가, 이후 학교도서관의 자료선정 문제를 도서선정정책, 도서선정위원회, 도서선정도구, 도서선정방법 등과 사서교사에 의한 도서선정의 필요성을 풀어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이지현, 2003). 하지만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선정 등을 중심으로 한 장서개발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데 반해, 학교도서관의 장서문제는 상대적으로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종성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 중 학교도서관 관련 논문을 수록하는 학술지들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관한 주제는 운영영역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장서는 학교도서관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종성, 2013).

이러한 연구동향에 근거해 보았을 때 학교도서관이 자료선정을 위한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사서가 선정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장서개발지침을 어떠한지, 자료구입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와 관련한 사서들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과 조사결과

1.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장서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20명으로부터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녹취하여 공통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20병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수도권과 지역의 초, 중 · 고등학교 유형에서 골고루 선정하였는데, 2015년 중반에 있었던 사서교사들의 공부모임에서 만나 연구 데이터 확보를 위한 면담을 의뢰하고, 그 자리에서 면담을 하거나 차후 방문을 통하여, 혹은 지인의 소개에 의한 눈덩이표집 등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면담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학교도서관 일부는 연구팀이 방문하여 시설 규모, 예산(자료구입비) 규모, 장서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학교도서관에 머무르는 동안 서가상의

www.kci.go.kr

자료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장서구서의 지향점이나 수준 등을 확인하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관찰하였다.

가능한 경우 사서교사 이외에 학교장, 교감, 학교도서관의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서개발 업무의 제약요인과 지원요인 등을 파악하고 학교도서관의 현상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즉, 의도적으로 표집한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인식에 기반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도출된 장서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비구조화된 형태로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상황이나 수집된 자료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례 면담을 시행하고 부족한 자료는 전화로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면담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특별히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면담 내용은 동의 하에 녹취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 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집결과 약 700분 가량의 녹음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들을 텍스트화 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면담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질적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11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NVivo는 QSR사에 의하여 개발된 NUD*IST의 새로운 패키지로 1995년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신버전인 NVivo11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NVivo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서 제시하는 코딩과 범주화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단계적, 효율적으로 자료를 범주화, 조직화할 수 있도록 자료와 색인 및 클러스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실제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녹취된 텍스트를 NVivo11에 불러들인 다음, 개별 파일을 검토하면서 의미있는 텍스트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코딩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한 후 특징적 개념을 추출하여 독립적인 노드로 코딩하였다. 노드가 설정되면 노드 리스트에서 유사 노드들을 묶고 계층화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코딩하고, 코딩을 완료한 후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노드를 결합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자료구입 예산

조사결과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에 대한 지적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학교운영형태(공/사립) 및 학교도서관의 위상, 그리고 관리자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자료구입비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도서관자료구입비로 할당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지역교육

www.kci.go.kr

청에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함으로써 교수-학습지원 중심시설 및 학교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을 학교도서관운영비로 우선 편성하고,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책정하도록 권장'(서울교육청)하거나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5% 이상을 자료구입비(3%) 및 도서관운영비(1% 이상)로 확보할 것을 권장"(부산교육청)하는 등 대체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의 3%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교육청 권장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확보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적지 않아서 권장기준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사립학교 가운데에는 형편이 조금 나은 도서관도 있었는데, 간혹 학교경상운영비의 6%이상을 도서관 운영비로 책정 받아 그 중 70%이상을 자료구입비로 책정하고, 시범학교예산, 교육용소프트웨어 예산, 교육청의 공모사업 지원금, 학교발전기금 등 부정기적인 예산도 도서관에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연간 수천만원의 자료구입비를 확보한 경우가 있었다. 반면, 어떤 학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학급문고구입비로 학급당 30만원씩을 책정하여 총 800만원 남짓의 금액으로 장서를 구입할 뿐 다른 지원은 없어 자료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고백도 있었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예산이나 학교 자체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권장사항은 단지 권장사항일 뿐이라 자료구입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는 도서관도 적지 않다는 점이며, 이 조항이 권장사항으로 존치하는 한은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였다. 연구팀이 만난 학교관리자(교장)들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운영비, 인력 및 장서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렇게 해주면 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나. 장서개발정책

조사대상이 된 학교도서관 가운데 제대로 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었다. 장서개발정책이라고 제시한 문서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장서개발정책이라기보다는 자료수집지침에 가까운 문서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서교사들은 장서개발정책과 같이 장기간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서교사들의 이동이 잦고, 한 학교에 사서교사가 연속하여 배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문서는 '기껏 만들어보았자 곧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즉, 대부분의 사서교사들이 자체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사서교사들은 보통 3년 또는 4년에 한번씩 학교를 옮겨야 하고 사서교사 수가 적다보니 사서교사가 배치되

www.kci.go.kr

었던 학교에는 향후 5-10년간은 사서교사가 부임할 가능성이 낮은 관계로 장서개발정책과 같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계획은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특히, 학교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교과과정의 변화와 연관지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2013년에 전면 개편된 이후, 다시 전면 개편되어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에, 그리고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에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2015개정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영어, 영어회화, 영어I, 영어독해와 작문 교과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영어Ⅱ, 2020년 중학교 3학년 순으로 연차적으로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록도서, 연계도서 그리고 관련도서 등의 수집은 대단히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에 대응한 전자자료의 확보 방안 등도 미리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선제적 대응은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경우에 따라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당국, 또는 교육청과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장서개발정책의 부재는 다가오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하기는커녕 실컷 작성해 둔 지침이나 계획들도 사서교사가 떠나자마자 다시 원상복귀되어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사서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 발령받은지 8년이 되었다. 처음 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가보니 말이 안나올 만큼 엉망이었다. 아마 사서교사들이 처음 발령받은 학교가 다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서교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도서관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 교과교사가 맡고 있었고 그렇다보니 장서관리는 둘째 치고 서가 배열도 엉망이었다. 근 한달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을 했다. 서가는 모자라고 복본과 30년이 지난 책도 수두룩했다. 서가 살 돈은 없고 서가는 낡은 책으로 가득해서 신간을 확보해도 들어갈 공간이 부족했다. 한동안 책 버리기만 하다가 한 해를 보낸 기억이 있다.(사서교사 A)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도서관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장서개발의 마스터플랜인 장서개발정책이 있다면, 장서개발의 기조와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이동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장서개발정책이 없어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다.

> 어둡고 갑갑하게 둘러 싼 불투명의 벽, 서가 곳곳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책들... 우리 학교도서관에 첫 출근하던 날, 그토록 그리던 내 꿈의 학교도서관은 절망 그 자체였다.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도서

www.kci.go.kr

관이라고 만든 것이 불과 5년 전이었고, 도서관 운영은 교과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때문에 장서개발(?)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사서교사 B)

첫 출근, 서가를 둘러보니 한숨이 나왔다. 사서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교사가 시간이 나는 점심시간에만 잠깐 도서관을 개방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배가 또한 엉망이었다. 장서의 20% 정도는 출판된 지 30년이 넘은 책들이었고, 도저히 학교도서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책들, 심지어 횡서가 아닌 종서로 인쇄된 책들도 상당 수 있었다. 교과서까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 관리시스템도 없어, 다른 학교의 장서와 객관적으로 비교도 어려워 약 3개월간 DLS 전환작업만 했다.(사서교사 C)

한편, 장서개발정책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장서개발이 이루어진 바 없으니 학교도서관에는 대체로 주제별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처음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제별 자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며, 방법적으로는 노후된 자료를 폐기하고 수서의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서교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경우 대체로 문학 분야에 장서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아래의 주제별 장서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비율은 한국도서관협회의 학교도서관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권장치이기는 하지만 사서교사가 없이 체계적인 장서개발정책에 의거하지 않고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우리 학교도서관의 현실에서는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의 주제별 장서구성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학교도서관 장서의 주제별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그림책	계
초	4	2	2	8	13	8	5	2	25	16	15	100
중	5	3	3	10	15	9	7	4	27	17		100
고	6	4	3	12	15	9	7	6	25	13		100

특히 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무계획적인 자료수집과 특히 지난 세월동안 무분별하게 도서 기증을 받은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조사대상이었던 학교도서관의 대부분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자료기증을 받고 있었는데, 물론 기증은 자료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주제의 틈을 매우는 대체 자료를 제공하며, 구입이 어려운 고가의 자료나 절판도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예를 들어 퇴임하는 교사들이 낡은 도서들을 기증하거나, 경우

www.kci.go.kr

에 따라 본인의 이름을 기록한 서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수증에 관한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파악되었다.

다. 자료선정

학교도서관에서는 교과활동 자료, 개정교육과정, 교육운영계획, 학교특색사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과 활동 및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시행령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는 것은 어렵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체로 각 학년 부장교사, 사서교사, 연구부장, 교감이 구성에 참여하며, 회의에 앞서 각 학년 부장교사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한 해 동안 계획된 공개수업, 수행평가, 현장체험, 기타 학교행사, 도서관활용수업과 관련된 단원과 이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조사하여 리스트를 지참하거나 혹은 사서교사에게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에 사전찾기, 지도읽기 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최근에 발행된 도감이나 사전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장서를 최대한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름 ·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학년별 권장도서, 추천도서 코너를 신설하여 방학 중 독서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료선정에 주로 활용되는 선정도구를 조사한 결과, 추천도서목록이 가장 많았고, 학교도서관 블로그나 회원전용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접수하는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목록,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 신문잡지와 블로그 등의 서평을 참조한다고 하는 대답이 많았다. 그 외에 독서관련 블로그나 카페, 관내 교육기관의 추천도서, 대형서점에서 제공하는 서평, 자체 제작한 추천도서목록 등을 통한 신간목록, 인터넷 서점의 신간도서목록 등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수서 1순위는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목록이었다. 학생들에게 희망도서신청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용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본인이 신청한 책이 도서관에 구입된 것을 본 학생들로 하여금 책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부원이나 명예사서를 활용하여 신간도서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았다. 도서부원들은 주로 대출권수 추가나 신간도서 우선 대출권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작은 서평 독서쪽지에 간단한 줄거리와 짧은 소감을 적어서 반납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간에 대한 요구를 듣는 경우였다.

사서교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도서를 우선 배정하고, 여러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신간도서의 서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추천도서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www.kci.go.kr

관의 추천도서 등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월 '학교도서관저널', '도서관 이야기', '행복한 아침독서',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등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월간지를 꾸준히 구독하며, 책을 직접 선별하여 상황별 맞춤도서, 학교 도서관에 필요한 장서, 재미있는 동화, 교과관련 도서 등을 구분하여 목록을 구성한 후 차후 자료선정에 활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까지 도서관 이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재미있는 그림책을 직접 선별하고, 특별히 반응이 좋았던 그림책은 따로 목록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높게 평가되는 그림책은 짧은 서평과 주제, 적정한 학년, 관련 교과, 독서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상황별 구분 등을 표시하여 목록으로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들 사서교사들은 대체로 그림책 작가와 출판사 등에 대한 안목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를 표한 사서교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구입희망 신청과 선정도서 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사서교사가 수서 목록을 대부분 작성하고 거기에 학생들의 구입희망도서, 교사들의 추천도서가 들어가는데 후자의 비율은 얼마 안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입시나 성적에만 관심이 있으니 구입희망도서는 신청이 거의 없다. 사서교사 혼자 모든 교과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특정 주제에 편향될 때고 있고 다른 주제 분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출판사 추천도서 목록은 자신들의 신간소개이고, 기관에서 나오는 추천도서 목록은 업데이트가 늦기 때문에 최신성이 낮다. 사서교사가 수서목록을 작성하기는 어렵고 인터넷의 서점들을 통해 구입하게 되는 경우 수집 된 책의 1/10 정도는 "좀 아니다"하는 것들도 있다. (사서교사 D)

한편, 학교도서관에서는 통상 연 2회-4회 자료를 구입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서교사는 자료선정을 위해서는 사서교사가 작성한 리스트와 출판사의 도서목록, 추천 또는 권장도서 목록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검토 과정이 업무 중에 '한가하게 책이나 보는 여유'로 비추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 많은 사서선생님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고 말한다. 많은 책들 가운데 수집대상 도서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서교사가 책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못해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의 시선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한가하게 '책이나 읽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미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업무 자체에만 집중하기엔 잡무가 많다. 넘치는 공문과 교과서 주문과 배분, 게다가 어떤 학교에서는 사서교사에게 교지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이런 업무들 때문에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할 일들이 오히려 뒷전이 된다. (사서교사 E)

www.kci.go.kr

> 학교에서는 사서교사가 넓은 교실에서 혼자 편안히 지낸다고 생각하여 각종 잡무를 사서교사에게 강요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 업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담임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에 투입 된다. 뿐 만이 아니라 학교 각종 행사나 행정적인 잡무도 강요받는다. 사서교사로서 도서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서개발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 충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용자 연구는 자연히 다음으로 밀리게 된다.(사서교사 F)

사서교사들은 주로 도서관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들어간 5교시를 이용하여 자료와 목록 등을 검토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서교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활동이다. 장서의 질과 활용률은 사서교사가 장서개발 업무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학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적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교양, 인문사회, 과학, 예술, 언어, 그리고 다문화 관련 출판물까지를 섭립하는 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울 수 없다. 이러한 사서교사의 직무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인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라. 장서관리

조사에 응한 사서교사들은 대체로 사서교사로서는 본인이 처음인 학교에 부임하였고, 따라서 도서관은 그야말로 황무지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용된 흔적이 없는 무수히 많은 복본들이 대표적인 증거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과제는 우선 지역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팀의 협조를 받아 폐기기준을 정한 뒤 자료를 폐기하고 목록 및 배가상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예를 들어 종서로 인쇄된 책, 현 교육과정에 맞지 않은 책, 종이 질이나, 인쇄상태가 안 좋은 책, 출판된 지 30년 이상이 된 책 등에 대한 폐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3항에 따라 제적·폐기할 수 있는 자료는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등이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7-37호) 가량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 파손 및 분실도서, 만화책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폐기한다. 물론 도서는 거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 재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파손이 심각한 상태의 도서는 폐기를 통해 학교도서관 장서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교도서관에서도 자료를 폐기하는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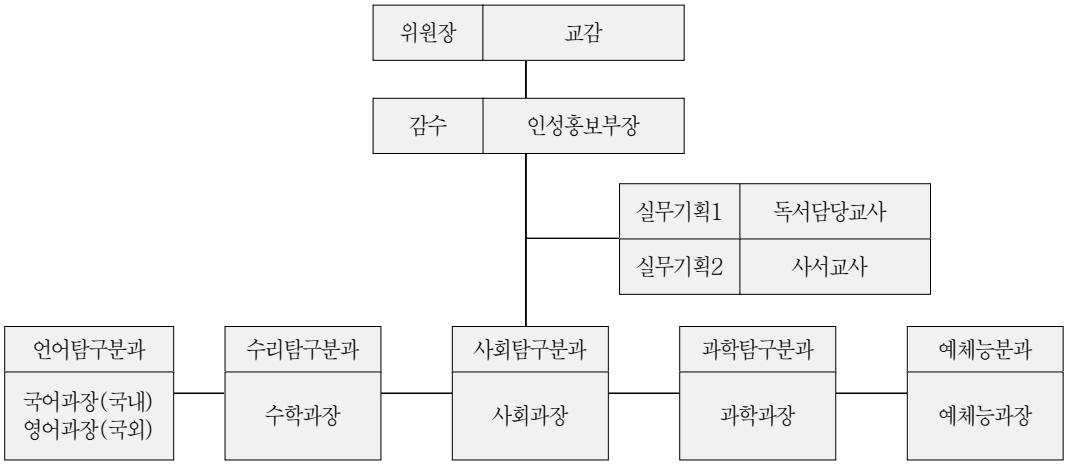
www.kci.go.kr

대한 이의는 흔히 관찰되는 부분이었다.

> 책은 불변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교사들(특히 도서관 업무를 맡아 보셨던 교사들)의 반발이 있으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에 폐기 계획을 포함시켜 예정대로 폐기를 진행하고 장서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사서교사G)

> 이 학교에서는 제적을 한 번도 못했다. 학교도서관 장서의 제적을 위해 기안을 올리면 교장실로 사서교사를 불러서 도서관 장서는 모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고 한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법등의 관련 문서를 보여드리며 제적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지만 도리가 없다. (사서교사H)

학교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자료의 수집, 폐기, 제적 등에 관한 결정이 심의된다. 법에 정해져 있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는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 · 제작 ·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 · 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자료의 정기적인 폐기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사들과의 협조와 의견공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대체적인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www.kci.go.kr

Ⅳ.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개선 방안

1. 학교도서관 인프라

이상에서 학교도서관 현장의 장서개발 문제들에 대한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일별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도서관에 대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즉, 학교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자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반하여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산의 부족은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장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장해애물이 되고 있었다. 특히, 신간 및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춰 학교도서관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추가구입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의 경우 관리자나 학교 역점사업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구입에 쓸 수 있을 만큼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도서관에 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거의 모두가 권장사항이나 강제성이 없어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의 부족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에 비해 사서교사의 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들마저 학교 인사이동의 대상으로 국, 공립학교의 경우 4~5년마다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동안 장기적인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한다. 사서교사가 떠난 학교에서는 주로 계약직 사서가 업무를 이어 받거나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할 가능성이 많다. 일반 도서관담당교사의 경우 대부분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그나마도 도서관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담당교사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가 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서개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2.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정책의 수립과 유지는 도서관 장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해서 적용해도 공립학교의 경우 담당자가 5년 내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 학교도서관에서는 장서개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www.kci.go.kr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단위 학교도서관에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학교도서관장서개발정책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2010년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한 이후 각급 공공도서관들이 이를 표준으로 자체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장의 사서교사들이 협력하여 학교 급별 공동기준을 마련하여, 성문화되고 표준화된 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장서개발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서교사들이 협력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개발하면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이를 반영한 도서 구입 목록과 장서관리 지침서도 수정 등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장서개발정책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승인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대외에 공포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 따라서 도서구입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수단으로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자료선정

자료선정도구 또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선정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서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서평지, 추천도서 목록 등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도구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즉. 시중에는 많은 서평지들이 나와 있으나 이 가운데 학교도서관 자료전문가인 사서교사들이 자료를 평가하여 내놓은 공식적인 장서개발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 협의체나 연구모임 등에서 교육과정 지원에 필요한 학교도서관 소장 필수자료 목록 및 상황별 자료목록을 개발하여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소장해야 하는 도서를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사서교사들의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여 공동으로 장서를 개발하거나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서울의 경우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구모임 산하의 권장도서목록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있어 추천도서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이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 자료선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서교사에게 출판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영양교사의 경우 급식물품의 품질과 시장가격을 조사하는 시간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에게도 주기적으로 대형서점 등을 방문하여 출판동향과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서교사의

www.kci.go.kr

직무분석을 근거로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간 약 35,000종 이상의 출판물이 쏟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도서관에 앉아 인터넷에 소개된 서평만으로는 책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의 서평이나 간단한 소개글만 보고 책을 구입했다가 실망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특히 개인이 읽기 위해 구입하는 책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장서라면 더더욱 직접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사서교사가 직접 책을 보고 확인하는 작업은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위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견들을 모아서 사서교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선정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다.

사서교사들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선정도구를 작성하는 것은 2018년부터 도입될 디지털교과서와 그에 대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디지털정보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증대되면서 실은 매우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즉, 현재 학교도서관의 경우 90% 이상의 장서개발정책의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 · 제작되는 인쇄매체 중심의 아날로그 자료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자료 및 인터넷 정보자원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형 도서관자료를 개발의 범주로 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하기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특정 분야의 책을 가지고 한 학급의 학생들이 도서관활용수업을 할 만큼 책의 양이 많지 않기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디지털정보원으로서, 디지털정보원의 경우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프로젝트수업에 대단히 유용하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도서관에서 디지털정보원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할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화 자료를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과 라이선스 확보와 방법, 계약조건, 그리고 저작권 문제 등 자료구입에 개입되는 사안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지원이 긴급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V. 결론

장서는 지식 기반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자원으로 도서관의 존재의의는 장서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한 나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의 장서는 단순히 책들의 집적체가 아니라 교

www.kci.go.kr

육과정, 즉 미래세대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정하는 도구이다. 학교도서관의 장서가 교과서 수록도서나 교과연계도서를 중심에 두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구축하면서 한국도서관기준의 학교도서관 장서기준을 참고하여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인쇄자료(잡지, 각종 참고자료류 등), 전자자료,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사서교사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의 심장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모티브를 장서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선정, 폐기 등 장서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학교도서관에서 실제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교사들의 인식을 가능한 한 현상 그대로 수록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관리자의 의지와 예산,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관리자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개입은 예산과 인력지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마다 지침이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운영비의 3%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책정하도록 권장되어 있으므로 일선학교에서도 이에 상응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서교사의 장서개발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 장서개발은 학생들의 독서의욕과 학교도서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과연계도서 개발을 통해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의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교육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폭력, 인성, 진로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황별 도서목록구축이나 독후활동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로 인하여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한정된 지면에 모두 옮길 수는 없는 점이 아쉽다. 분명한 점은 결국 학교도서관 장서개발의 열쇠는 사서교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학교도서관 관련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고 글을 맺는다.

>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핵심이다. 사서교사는 사서 자격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을 이수해 정규 수업도 진행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책과 독서, 정보, 도서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사서교사의 중요성도 사례로 설명하겠다. 한 사서교사는 부산 시내 모 중학교에 근무하며 밤샘독서교실, 책 1권 읽기 운동, 저자에게 조언구하기 등 기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책과 친해질 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고 학교에서 바라는 명문 고교

www.kci.go.kr

진학도 활발했다. 하지만 이 사서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간 뒤 대부분 독서 관련 활동이 없어졌다.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독서 캠페인을 벌이며 학생들에게 책이란 인생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교사는 학생들을 책과 도서관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문제는 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부산지역 초·중·고 638개 학교 전체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데 사서교사는 42명뿐이다. 시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원을 시도하지만 법이 걸림돌이다. 학교도서관법 제12조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수업권을 가진 사서교사와 수업권이 없는 사서를 구분하지 않아 사서교사 증원에 장애물이 된다. 더욱이 이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총정원은 학생 1,500명 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못 박았다.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생 수로 사서교사 기준을 정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시 교육청은 "사서교사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서교사를 보고 싶다' 국제신문 2016. 3. 14)

참고문헌

김종성. 2004. 학교도서관길찾기. 서울:나라말.

김종성. 2013.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71-91.

김평훈. 1979.『학교도서관의 도서선택에 관한 연구』. 논문집, 광주교육대학교.

변우열. 1998. 학교도서관 자료기준에 관한 고찰.『도서관학논집』, 28: 61-91.

서진원. 1988.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성에 관한 일 연구.『국회도서관보』, 198: 52-68.

이병기. 1993.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성.『도서관문화』, 34(6): 398-407.

이지현. 2003.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서관의 도서선택에 관한 사례 연구.『독서문화연구』, 3: 83-115.

조정래. 2016.『풀꽃도 꽃이다』. 서울:해냄.

국제신문. 사서교사를 보고 싶다. 2016.『부산:국제신문사』. 3월 14일.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J. S. 2013. "Trends Analysis of School Library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Biblia Soiety*, 24(2): 71-91

Kim P. H. 1979. "A Research on Book Selection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www.kci.go.k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8: 237-262.

Byun, W. Y. 1998. "A Study on Development of Domestic School Library Standard." *J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61-91

Seo, J. W. 1988. "A Study of Collection Builing in School Libraries." *Korea National Assembly Library Bulletin*, 198: 52-68

Lee, B. K. 1993. "Collection Building in School Libraries." *Library Culture*, 34(6): 398-407

Lee, J. H. 2003. "Case Study on the Select Materials of the Elementary School's Library in our Country." *Journal of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3: 83-115.

www.kci.go.kr

www.kci.go.kr